

# 유망 강소기업 소통 간담회

### 군산시, 5개사 선정 경제 재도약 위한 기업 성장발판 마련

군산시는 15일, 전북산학융합원에서 유망 강소기업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역 혁신성장을 선도할 2022년 유망 강소기업 신규 5개사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도 함께 가졌다.

지난 3월부터 공고를 통해 신청접수한 16개사 중 심층평가를 통해 선정된 유망 강소기업은 △나래바이오(주) △대영엔지니어링(주) △씨아이티(주) △(주)우성이앤에스 △조일금속공업(주)다. 이번에 선정된 나래바이오(주) 대영엔지니어링(주) 씨아이티(주) (주)우성이앤에스 조일금속공업(주)는 모두 국가산업단체에 위치하며, 각각 복합비료 및 화학비료, 표면처리, 자동차 내외장재, 차체 및 특장차, 소각장부품회격자물

대표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유망한 기업들이다.

2019년 도내 시군 최초로 시행한 군산시 유망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기업수요에 따른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자동차 도장 전문업체 (주)카라, 세정제·방향제 생산 업체 (주)퓨코를 비롯해 12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망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간 매년 3천만원의 사업비와 함께 전담 PM을 통해 기업의 중장기 성장 전략을 수립하게 되고 기술혁신, 판로지원, 경영 및 품질혁신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지역의 연구기관과 R&D 협력 아이템을 발굴하고 우수 기술사에도 공유하고 있다.

그 결과 2019년 처음 유망강소기업으로 선정되어 작년을 끝으로 3년간의 지원이 마무리된 (주)풍림파마텍, 명일 책임해임(주) 등 10개사는 사업에 선정되기 전인 2018년과 대비해 2021년 평균 매출액과 고용인원이 각 74%, 47% 증가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률을 보여 군산경제 재도약을 이끌고 있다.

소통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강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의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기업성장 협력 방안 등을 상호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고용위기와 경제위기 등 힘든 상황에도 군산 산업계가 꿋꿋하게 버틸 수 있는 원천이 바로 유망 강소기업이다”고 말했다.

【군산=김관곤 기자



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는 15일 제8대 의회 마무리 간담회를 열어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를 가졌다

## ‘큰 희망이 되는 익산시의회’

### 익산시의회, 의정활동 마무리 간담회 개최

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는 15일 제8대 의회 마무리 간담회를 열어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현을 시장을 비롯한 국소단체 의회사무국 직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재구 의장은 의원들에게 재직기평패를 전달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고, 이후 오찬을 함께 하며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시정 발전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제8대 익산시의회의 가장 큰 성과로 손꼽는 것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회의의 인터넷 생중계,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6개의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의원들의 정책능력을 향상시켜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유재구 의장은 송별사에서 “28만 익산시민의 행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발을 맞춰 함께 힘차게 달려온 의원들 모두 수고 많으셨다.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회’, 대안을 제시하는 ‘희봉의회’, 한마음으로 삼가는 ‘형통의회’로 익산시의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된 것이 매우 자랑스럽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에 더 큰 희망이 되는 익산시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제8대 익산시의원 중 13명(강경숙, 김경진, 김진규, 김충영, 박종대, 박철원, 오일선, 유재구, 장경호, 조규대, 조남석, 최종오, 한동연 의원)이 당선돼 제9대 익산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이어간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코로나19 심리지원 방역 호응

### 마음을 나르샤 회복 솔루션

군산시의 코로나19에 따른 선제적 심리상담 치료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진단검사와 심리상담·치료를 운영하고 올해부터는 이를 확대 추진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온(溫)마음 출장소 운영으로 공공기관, 직장, 복지관, 공원 등 방문 상담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및 우울 스크리닝 검사와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온(溫)마음 정미소는 학교, 복지관 등 집단교육으로 직무 스트레스 인식개

선, 힐링 치유 교육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마음건강을 지키도록 다양한 심리회복을 지원했다.

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와 연계 진행해 원예치료요법을 통한 새싹키르기 키트와 반려식물 1종 ‘오늘도 화(花)이팅!’ 꾸러미(마음건강을 응원하는 메시지카드 포함)를 자가격리자 중 희망자에게 제공하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의료인 및 대응 인력들을 위한 정서적 프로그램 바인드 파트너 및 코로나19 확진자 대상 우울평가 검사 후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 전화상담 등을 지원했다.

올해에만 벌써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심리지원프로그램을 4회(622명) 운영했으며 원예꾸러미 및 심리지원물품 배부 1500여명, 코로나19관련 의료인 및 대응인력 소진관리 프로그램

39회(827명), 우울 극복 심리지원 문자발송(33,500건) 및 우울검사(2,200건)를 실시했다.

백종현 보건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심리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군산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심리방역을 위해 책임지는 자세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으로 후유증을 앓고있는 시민 모두에게 기초검사 및 상담치료를 포함한 출장 상담소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063-451-0368)으로 하면 된다.

【군산=김관곤 기자

## ‘군산시 명장’ 최고 숙련기술인 인증패 수여

군산시는 15일 올해 ‘군산시 명장’으로 선정된 △마음분야 김승혜 김정미 대표 △제과·제빵 분야 바게뜨파자집 이종길 대표에게 명장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했다.

시는 한 분야에서 오랜 기간 종사한 숙련기술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명장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 명장심사위원회를 통해 서류 및 현장심사로 자격을 검증하고, 최종 후보자에 심의 의결을 거

쳐 2022년도 군산시 명장을 선정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해당 분야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한 길을 걸어 오신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자신의 기능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지역사회 봉사에도 이바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선정된 명장에게는 군산시 명장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시 홈페이지 명장코너에 등재하여 홍보하며, 향후 관료개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기



술전수 및 보급사업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군산시 명장은 2021년 첫째 1명(조리분야 지미원 대표 유현자), 올해는 2명이 탄생해 총 3명이 선정됐다. 【군산=김관곤 기자

## 익산시, 청년주방 창업·성공적 안착 지원

익산시는 지역 청년들의 성공적인 요식업 창업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시는 지난해 창업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으로 진행된 롯데마트 ‘익산청년주방’의 청년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3일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영업 활동을 지원하고 위드코로나 후속지원 프로그램으로 기획됐으며, 관련 부서와 협조해 청년주방 요식업 종사자를 위한 전문 위생교육으로 진행됐다.

시는 지난해 ‘익산청년주방’ 개점 이후 청년창업가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홍보마케팅·매뉴개발·세무회계 교육 등을 진행해왔다.

앞으로도 식품조리법·마케팅·선배 요식업 창업자과의 멘토링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 전문가를 통한 후속지원 과 어머니 멘토단을 구성해 청년 창업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요식업 창업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을 지속적인 관리로 통해 청년창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익산청년주방이 외식창업을 선도하는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청년주방에는 예술국수, 전주순두부, 프레시한디, 양갈래, 호령이 짬뽕 순두부(등 5명의 청년창업가가 입점해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보건소, 원숭이 두창 감염 주의 당부

군산시 보건소는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원숭이두창이 치료 및 격리 의무가 부여된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됨에 따라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한 감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원숭이두창은 주로 아프리카의 농촌 열대우림지역에서 발생하나 세계 각국에서 감염 사례가 늘고 있으며 증상은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을 시작으로 1-3일 후에 얼굴 중심으로 발진 증상을 보인다.

발진은 몸의 다른 부위로 확산되고 수포, 농포 및 가피 등으로 진행되며 증상은 약 2-4주 정도 지속된다. 감염 경로는 동물과 사람의 피부 상처 또는 점막을 통한 감염원과의 직접 접촉 등이며 WHO에 따르면 최근 치명률은 3~6%로 보고되고 있다. 【군산=김관곤 기자

#### 익산시, 산불예방·대응 도내 ‘최우수기관’ 선정

익산시가 산불예방·대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산림재난 안전 도시로 인정받았다.

시는 전북도가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불 예방·대응 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산불 발생 건수, 산불방지 홍보, 과태료 부과 실적, 산불 대응 산불방지 협력도 등을 종합해 이뤄졌다.

시는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을 읍·면·동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했으며, 익산소방서와 협업체 국가 지정 목초분화제 합동 소방 훈련을 실시하는 등 산불예방과 대응능력 향상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논·밭두렁 등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의 자발적인 시민참여 유도 및 산림인접지 영농부산물 파쇄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